

사진 촬영: 키이스 존슨(DESERET MORNING NEWS)



슬트레이크 홀러데이 남 스테이크 홀러데이 제 4 와드에 있는 수 기기 자매(왼쪽)는 낸시 그라프 자매가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질문하는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다. 기기 자매는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가족 역사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왔다.

상호부조회, 열성적으로 강화 프로그램 진행

줄리 닥스테이더 힉스, *Church News* 기자

단 합된 자매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을 강화함. 이는 바로 지난 1월,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의 보니 디 파킨, 캐서린 에이치 휴즈, 그리고 앤 시 핑그리 자매가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을 위해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활동이 여성들이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뿐 아니라 함께 모여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참여하는 자매들과 지도자들은 열성을 보입니다.” 라고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를 감독하는 핑그리 자매가 말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개인과 가족 그리고 와드 모두가 축복받게 됩니다.”

핑그리 자매는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과 활동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2005년 8월

제일회장단 서신을 언급하며, 본부 회장단은 교회 도처에서 받는 보고서를 통해 자매들이 “어떻게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을 통해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침]은 지역적 차원에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본부 위원회 위원인 코니 캐넌 자매와 헬렌 티리어트 자매가 함께한 *Church News*와의 모임에서, 핑그리 자매는 지역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강화 활동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당 와드 또는 지부에 속한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한다.
- 자매들의 의견을 가까이 받아들인다.
-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관여하도록 한다. 감독과 지부 회장은 개인과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 목적을 가지고 기도으로써 계획한다.

상호부조회 본부 사무실에 전해지는 많은 사례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주리 주 세인트 로버트 스테이크 휴스턴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게일 맥하디 자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보좌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 “영은 우리를 돕기 위해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기도를 한 후, 그녀는 지부 회장의 도움으로 지부의 자매들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녀는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 미국식 수화 교실인 것에 놀랐다. 수화를 배운 적이 있는 지부의 한 자매가 수업을 가르치는 데 동의했다.

“지부 회장님은 머지않아 합창단이 노래할 때 그 자매들이 함께 수화를 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라고 맥하디 자매는 말했다. 맥하디 자매는 한 자매가 최근 교회에서 다시 활동하게 되었는데 수화 교실을 통해 “그녀가 상호부조회에서 훨씬 더 큰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솔트레이크 홀러데이 남 스테이크, 홀러데이 제4 와드의 강화 활동 지도자인 수 개스킬 자매는 와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 기기 자매와 줄리 롤링스 자매의 컴퓨터 기술을 살려 와드에서는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했다. 기기 자매와 롤링스 자매는 다른 자매들의 집을 방문해 가족 역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2006년 9월 12일, 와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성전에 참석하여 각각 적어도 한 명의 조상을 위한 의식을 받았다.

개스킬 자매는 외출할 수 없는 자매들

과 점심 식사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이 인도하는 대로 즐거우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젊은 자매들이 “상호부조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깨닫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교회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그 밖의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자매들에게 아이들 머리 손질, 요리 및 기본적인 바느질을 가르쳐 가족 생활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멕시코의 한 지부.

정숙한 파티 드레스 재봉 수업을 제공하는 아이다호 주 블랙풋의 한 와드.

많은 신혼 부부들에게 결혼 생활 강화 및 예산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가르치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와드.

스페인어를 하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영어 가르치기를 돕는 애리조나의 한 스테이크.

취업 교실을 제공하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독신 성인 와드.

“저는 자매들을 강화해 주고 들어 올려 주며 가족들 또한 강화해 주는 우정과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핑그리 자매는 말했다. ■

2006년 8월 19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유럽의 열 번째 성전 개방

교회는 2006년 8월 유럽에서 열 번째이자 핀란드에서는 첫 번째인 성전을 핀란드 헬싱키에서 완공했다.

2006년 9월 21부터 10월 7일까지 두 주 동안의 일반 공개 행사 동안 일반인들이 성전을 둘러보았다. 이 성전을 이용할 지역 내 후기 성도들을 위해 네 차례의 헌납식이 진행되었다.

성전 헌납과 함께, 2006년 10월 21일 헬싱키에서는 지역 전역의 교회 회원들을 위해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문화 행사가 열렸다.

성전은 합당한 회원들이 성스러운 성약과 의식에 참여함에 따라 성전 축복을 받고 필멸 이전의 생과 이 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해 준다.

“각각의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상징이고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한 우리 신앙의 증거입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

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말했다. “성전은 교회의 모든 활동, 모든 공과, 모든 진보적인 발전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데 쏟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합니다.”(“Prepare for Blessings of the Temple”, *Ensign*, 2002년 3월호, 17쪽)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는 헬싱키 성전 지역의 약 26,000명의 회원들은 이제 성전이 주는 축복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핀란드에는 4,500명 이상의 교회 회원이 살고 있다. 핀란드의 선교 사업은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스웨덴에서 온 선교사들은 1876년 바사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해 핀란드 최초의 개종자들이 침례 받았으며 1886년까지 스웨덴어를 하는 핀란드인 25명이 침례 받았다. 핀란드 선교부는 1947년에 조직되



헬싱키 핀란드 성전

있으며, 당시 핀란드에는 단지 129명의 회원만이 있었다. 이후 7년 동안 교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몰몬경이 핀란드어로 번역되었다. 헬싱키 스테이크는 3,462명의 회원으로 1977년 10월에 조직되었다.

헬싱키 핀란드 성전은 2000년 4월 2일, 제170차 교회 연차 대회 중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기공식은 2003년 3월 29일 헬싱키의 교외 지역인 에스푸 시 카라칼리오에서 열렸다. 핀란드 성전은 세계에서 124번째로 운영 중인 성전이며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3번째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성전과 덴마크의 코펜하겐 성전은 각각 1985년과 2004년에 완공되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성전들은 다른 모든 건물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성전은 가르침의 집입니다. 그곳은 성약과 약속의 장소입니다. 성전 제단에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영원무궁

한 축복을 약속 받습니다. 그 약속의 성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자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셔서 우리 모두의 대리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은 접어 두고 스스로 의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신권 권능을 통해 인간 관계 중 가장 신성한 관계로 결합됩니다. 즉,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시간이 파괴하거나 죽음이 끊어 놓을 수 없는 인봉으로 엮어진 가족으로 말입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들은 후기 성도들이 가차없이 쫓겨나서 박해를 받았던 암흑기 동안에도 건립되었습니다. 궁핍한 시기에 도 변영한 시기에도 건립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성전은 살아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선지자, 신성한 계시, 그리고 평화에 대해 증거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신앙과 주님의

집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옵니다.”(“Why These Temples?” *Tambuli*, 1992년 6월호, 2쪽; *Ensign*, 1974년 8월호, 37쪽) ■

교회 부서, 현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책자 제작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립, 부채 그리고 현명한 재정 관리에 대해 여러 차례 권고해 왔으며 교회의 복지 사업부는 교회 회원들이 그 권고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될 도구를 만들었다.

2001년 10월에 힝클리 회장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거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궁핍할 때를 대비하여 약간의 돈을 저축해 두실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4~85쪽)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소책자, *One for the Money: Guide to Family Finance*는 회원들이 채무에 대해 이해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교회 회원들 또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복지 사업부 감독을 맡고 있는 테니스 리퍼스 형제는 말했다.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는 자립할 것과 수입 범위 안에서 생활할 것을 권고받아 왔습니다.”

*One for the Money: Guide to Family Finance*의 내용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년) 장로가 1975년 4월 복지 사업 모임에서

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 내용이 소책자로서 마지막으로 출판된 것은 1992년이었다. 새로운 디자인은 도표도 포함하고 지면 배정도 새로와졌으며, 애쉬톤 장로의 말씀이 읽는 이에게 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 책자는 애쉬톤 장로가 요약한, 시대를 넘어선 12가지 원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 정직한 십일조를 내십시오.
2. 돈이 여러분을 관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3.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기 수양과 자제를 배우십시오.
4. 예산을 세우십시오.
5. 가족 구성원들에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조기에 가르치십시오.
6. 자녀들의 이해력을 고려하여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7. 가족 각자가 가족 전체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8. 교육이 지속적인 과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9.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10. 적절한 선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11. 가족의 재정 상태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을 파악하십시오.

12. 식품 비축 및 비상시 대처 프로그램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교회는 이 책자를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새 책자는 교회 배부 센터, 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ldscatalog.com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전자 파일로 된 새 책자와 그 밖의 재정 관리 자료는 providentliving.org에서 이용 가능하다.

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빛을 모두 갠 난 뒤, 비록 아주 적은 액수라도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그때는 모진 풍파가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닥쳐도,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 줄 보호막을 갖게 될 것이며, 마음에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이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조하여 말하고 싶습니다.”(“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4쪽) ■

소책자는 구도자들에게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하면서 참조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장에 나오는 첫 세 토론과 부합하는 이 소책자는 선교사들이 떠난 후 떠오를 수 있는 질문에 답하고 다음 토론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각각의 소책자들은 *회복*,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며, 각 토론에 담긴 원리들에 대한 요약과 탐구할 만한 질문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작은 책자이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일요일 모임에 대한 개요는 구도자들이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게 해 주며, 결심 사항 목록은 경전 공부에 대한 안내를 수록하고 있고 추가 학습 자료에 대해 알려 준다.

전세계 선교부들은 2006년에 영어로 된 책자를 받았다. 선교사들은 토론을 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와 함께 사용하도록 제작된 새 소책자들은 교회에 대해 배우는 구도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다.

교회에 대해 배우는 이들을 돕는 세 가지 새로운 소책자

세 가지 새로운 선교 소책자의 편찬으로, 구도자들은 이제 선교사들과의 첫 세 토론을 각각 마칠 때마다 읽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인쇄물을 받게 될 것이다.

“토론이 끝날 때마다, 구도자들은 무언가 읽을 것을 받게 됩니다.”라고 고든 비헝클리 회장은 첫 번째 전세계 지도자 훈

련 모임에서 말했다. “그것은 물론 경의 지정된 장일 수도 있고 다른 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자가 읽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20쪽)

비할 때 그 소책자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참고하도록 권고 받았다. 각 책자는 그림과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선교사들은 책자를 통해 구도자들에게 결심한 것에 대해 상기시켜 줄 수 있고, 구도자들을 교회에 초대할 수 있으며 mormon.org를 소개할 수도 있다. 회원들은 가족 및 친구들과 이 책자를 함께 나누도록 권고 받는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운동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이 소책자들은 현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안내서가 출판된 언어, 즉 총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중이다.

소책자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배부 센터나 ldscatalog.com에서 25권 묶음을 미화 \$2.50에 살 수 있다. ■

16일, 팔라우 보건부가 교회가 기증한 새 휠체어를 주니어에게 준 그날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주니어는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이후에는 운동 경기도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나단 레멘게사우 역시 새 휠체어가 준 축복에 대해 감사한다. 그는 2002년 당뇨병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그의 낡은 휠체어가 결국 작동을 멈췄을 때 그는 새것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그는 새 휠체어가 너무 비싸 낙심했다. 새 휠체어는 일반적으로 미화 700달러 이상이었으며, 이는 그의 정해진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낡은 휠체어의 합판 시트는 그의 다리에 쓸려 쓰러린 상처를 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희망을 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무료로 휠체어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누군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를 도와준 건 처음이에요.”라고 그는 새 휠체어에 앉아 말했다.

10살 된 디라인가스 에데야오치의 첫 번째 휠체어는 교회가 최근에 기증한 것이었다. 휠체어를 기증받기 전에 이 소녀는 어디로 가든지 누군가에게 안겨 가야만 했다. 에데야오치가 커 가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안고 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제 소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무척 좋아하는 풍경이 있는 곳으로 그녀를 데리고 갈 계획이다.

이 몇 가지 이야기는 교회로부터 휠체어를 받았을 때 새로운 자유를 얻은 팔라우의 많은 사람들 중 단지 세 명의 이야기일 뿐이다.

복지부의 빅토르 야노 장관은 250대의 휠체어를 기증한 것은 팔라우 사람들

교회, 팔라우에 기동력과 자유를 전하다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교회는 매년 70개국에 40,000대의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8월, 교회는 필리핀 남동쪽으로 몇 백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나라 팔라우에 새 휠체어 250대를 기증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으며, 그 수많은

수혜자들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인해 이 휠체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다른 교회의 회원인 주니어 세나르도는 14년 전 사고로 목에 충격을 받아 마비되었다. 이 부상으로 그는 늘 침대 신세를 지야 했고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도 다른 이들에게 의지해야 했다. 2006년 8월



디라인가스 에데야오치 자매가 새 휠체어를 받은 후 교회 서비스 센터 책임자인 빌 데이비스 형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수입에 오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휠체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교회에 감사를 돌렸다. 그는 교회를 대표한 코로르 탐사이드 지부의 레블루드 케슬레이 지부 회장과 광 서비스 센터 책임자인 빌 데이비스 형제에게 팔라우 사람들을 위해 기증을 주선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휠체어 기증은 전세계에 걸쳐 교회가

활동적으로 관여해 온 여러 인도주의적 구제 및 개발 활동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 회원들과 그 외 사람들의 기부로 교회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의 자금이 충당된다. 이 프로그램은 고통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우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적과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과 가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난 하나님의 자녀
당신 뜻 행하면
영원히 살수 있다는
축복이 크도다

본부 초등학교 임원회 위원과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로 봉사한 나ومی 더블류랜들 자매는 본부 초등학교 임원회의 요청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의 작사를 맡았다. 작곡은 본부 초등학교 임원회 위원으로 봉사한 또 한 명의 자매인 밀드레드 티페티트 자매가 맡았다.

랜들 자매는 곡에 맞춰 가사를 짓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적절한 가사를 제게 알려 주시기를 간청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경, 저는 잠에서 깨어나 다시 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 저는 즉시 일어나 떠오르는 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3절의 가사와 후렴구가 이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50주년이 된 사랑 받는 찬송가

애비 올슨, 교회 잡지

찬 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는 온 지구에 울려 퍼졌고, 1957년 이래로 전세계의 성인들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 음률과 가사를 노래해 왔다.

이 곡을 기념하는 50주년이 다가오는 현재, 곡은 9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계속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

세 절의 가사로 구성된 이 찬송가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며 영원한 가능성을 가지고 지상에 왔다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 부모와 교사들은 영생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필멸의 삶 속에서 어린이들이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권고를 받았다.

찬송가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후렴]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2. 난 하나님의 자녀
나 비록 어렵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 주소서



이제 50주년이 된 사랑 받는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는 전세계 90개 이상의 언어로 불려진다.

마음으로 가사를 검토했고, 그 가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취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침실로 돌아왔습니다.”(카렌 린 데이비슨, *Our Latter-day Hymns*(1998년), 303~304쪽)

랜들 자매는 페티트 자매에게 가사를 보냈고, 그녀는 음악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원래 후렴구 첫 줄의 가사는 “제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이다. 노래가 쓰여지고 난 후,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그 노래를 불렀던 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나중에 랜들 자매에게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를 “제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지 물었고, 그리하여 지금의 가사가 완성되었다.(역자 주: 한국어 찬송가에는 음률을 맞추기 위해 다른 가사가 적용되어 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킴볼 회장은 말했다. “악마는 알고 있지만 두려워합니다. 악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New Verse Is Written for Popular Song,” 1978년 4월 1일자 *Church News*, 16쪽)

이 노래의 4번째 절은 195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초등학교 합창단이 부르도록 지어졌다. 현재 사용하는 찬송가를 출판하기 전에 본부 음악 위원회와 협의부는 추가 구절이 공식적으로는 노래의 일부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어린이 노래책이 제작되었을 때, 초등학교 본부 위원회는 4번째 절을 포함하기로 했다. 네 절로 편곡된 노래는 국

제판 어린이 노래책에 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4절은 다음과 같다.

4. 난 하나님의 자녀
주 약속하셨네
끝까지 계명 지키면
해의 영광 언네

이 찬송가는 처음 1969년에 출판된 어린이 노래책 *Sing with Me*에 처음 실렸고, 그 후 1989년 다윈 윌포드의 편곡으로 어린이 노래책에 포함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는 *Gospel Fundamentals*와 복음 원리 안내서에 있는 45개의 찬송가 및 어린이 노래 중 하나이다. 이는 교회 자료가 새로운 언어로 처음 소개될 때 “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찬송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과 지침서, 기악곡이나 합창곡 또는 다른 형태로 개작된 작품, CD,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난 하나님의 자녀” 스티커, 그리고 그 밖의 자료들 모두 이 사랑받는 찬송가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찬송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기 위해 문화와 환경 그리고 전통을 넘어 뻗어 나갔다.

당시 칠십인 중 한 명이었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1978년 이 노래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친히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엘마서 26:37)라고 말했고 우리 각자는 그분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할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으로써 그분과 대화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좀 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Tambuli*, 1978년 11월, 21쪽; *Friend*, 1978년 3월, 7쪽) ■

편지 요청

10 월호 리아호나는 특별히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리아호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이번 특집호의 정보와 기사들은 어떤 면에서 유익했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회원이라면, 교회에 대해 좀 더 배우기 위해 이 잡지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여러분이 오래된 회원이라면, 최근 개종자들을 돕기 위해 이 잡지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이번 특집호를 활용함으로써 저희와 나누고 싶은 특별한 경험을 얻으셨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New Member Issue”를 분명히 기재하시고 2007년 2월 15일까지 liahona@ldschurch.org 또는 *Liahona* Editorial,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부분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와드, 스테이크(또는 지부나 지방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

2007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두려워 말라”를 참조한다.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기도할 때 강화된다. 감독님이 지부 회장님의 승인을 받아 와드나 지부의 형제를 한 명 초대해 조셉 스미스를 떠올리는 간단한 복장을 하고 첫번째 시현(조셉 스미스-역사1:5~20)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에게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또한 조셉 스미스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기로 한 결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초대된 형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반주자가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찬송가 24장)나 선지자에 관한 다른 찬송가를 배경 음악으로 조용히 연주하도록 한다. 초대된 형제에게 조셉 스미스와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을 나눠 주기를 부탁한다. 아이들이 찬송가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를 함께 부르도록 한다.

2.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다. 그분은 내가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준다. 그것이 얼마나 작은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돌아다니며 보여 준다. (만약 겨자씨를 구할 수 없다면, 자라서 옥수수대가 되는 옥수수 알갱이처럼, 나중에 커지는 다른 종류의 씨를 선택한다.) 어린이들에게 누가복음 17장 5~6절을 펴 보게 하고 함께 읽는다. 신앙을 키우기를 원했던 사도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전의 내용을 다시 말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심지어 작은 신앙도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1906~2004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헝클리 회장님은 종종 더 큰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복음 원리, 우리가 사는 방식의 결과입니다.”(우리 선지자들의 신앙”,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6쪽)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키울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라”(찬송가 191장)를 부른다. 각각의 어린이들에게 종이와 연필 또는 크레용을 준다. 종이를 4등분 하여 접게 한다.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 네 가지를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다. (“그리기 활동”,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66~167쪽)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반주자가 침례, 기도, 십일조 등등의 특정 계명에 대한 그 밖의 초등학교 노래 몇 곡을 연주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신앙을 갖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그분의 계명

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이 되었던 때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간증한다.

3. 노래 발표: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리아호나, 2003년 2월호, 친16쪽; 또는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함께 나누는 시간과 어린이 성찬식 발표회를 위한 2007년 개요 [2006년], 11쪽) 노래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 몇 가지를 나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칠판에 1, 2, 3, 4를 적는다. (한 주에 한 절씩 가르치기 위해 노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해도 좋다. 네 개의 숫자 모두 칠판에 적고, 첫 주에는 처음 두 개의 축복만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첫 번째 축복에 대해 들어 보라고 한다. “어려서 주님의 참된 길 가르쳐 축복을 주신 주”를 부르고 “바른 길 친구 전하여 증언하면서 살겠네” 부분은 ‘라라라’로 부른다. 어린이들이 대답하면 답을 칠판에 적은 후 “참된 길 가르쳐 축복”이라고 적는다. 같은 방법으로 “주 도움 구하면 나에게 힘을 주어 축복을 주신 주”를 부르고 나머지 부분은 “라라라”로 부른다. 같은 방식으로 “주 도움 구하면 나에게 힘을 주어 축복을 주신 주”에서 “힘을 주어 축복”이라는 부분을 찾아낸다. 축복에 대해 더 알려 주기 위해 “음음음”으로 부른 부분을 설명해 준다. (나머지 두 가지 축복은 다음과 같다. 주 사랑 느끼게 [함], 내 모든 일 축복)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해 준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

200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및 공과 **교재 소개**

2007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 본부에서는 2007년을 위한 새로운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발표했다. 초등회 어린이들을 위한 ‘2007년 함께 나누는 시간과 어린이 성찬식 발표를 위한 개요’도 나왔다. 멜기세덱 신권과 상호부조를 위한 주일학교 공과 교재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영원히 참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2007년부터 접하게 될 ‘새롭고도 영원한 것들’을 소개한다.

200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교리와 성약 121:45)

전세계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절망에 젖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같다.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불안과 절망 앞에 노출돼 있는 오늘날의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이 주제는 ‘자신감’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 본부 청남 및 청녀 회장단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상호 향상 모임의 새로운 주제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전했다. 또한 제일회장단은 청남 및 청녀 지도자들이 상호 향상 모임 개회 순서와 그 외 청소년 활동에서 이 주제를 강조할 것을 권고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본문 ‘진정한 자신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초등회 함께 나누는 시간과 성찬식 발표를 위한 주제



“또 보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사이야서 3:9)

올해 초등회의 주제는 모사이야서 3장 9절을 바탕으로 한 “신앙으로 주님 따르라”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신앙을 실천하려는 결심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 이번 주제의 목적이 있다. 전세계의 초등회 회장단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이 주제를 가르칠 수 있다. 또한 2007년 성찬식 발표에서 이 주제를 통해서 초등회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선보일 수 있다.

신권회/상호부조회



2007년에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은 주일학교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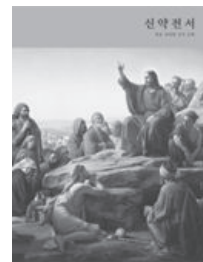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김볼 회장은 일찍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불렸다. 후기 성도에게는 하나의 경구(警句)가 된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란 말도 그

의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김볼 회장은 1973년부터 1985년까지 교회의 제12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우리들이 복음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영감적인 권고를 남겼다. 또한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 전세계의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교사들은 김볼 회장의 가르침과 경전을 통해 반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김볼 회장의 가르침을 읽고 그 의미와 적용에 대해 토론하는 데 공과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수 있다. 반원들 역시 일요일 공과 시간 전에 각 장을 공부함으로써 공과에 더 잘 참여하고, 서로를 교화할 수 있다.

복음 교리반



2007년에 복음 교리반은 신약전서를 배우게 된다. 신약전서에 대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은 왜 우리가 신약전서를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한다. “신약전서의 모든 메시지는 인간의 영혼에 깨우침의 영을 가져다줍니다. 절망의 그늘이 소망의 빛으로 인해 사라지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앎으로써 군중 속에서의 고독감이 사라집니다.” 교사들과 반원들은 토론 수업을 통해 신약전서에 담긴 복음 원리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 ■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학교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말씀보다 감동적이다.

류기인,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침례 받은 지 2년째였는데 교회의 여러 계명, 그 중에서도 지혜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0대 중반의 일용직 근무자 한 명과 며칠 동안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일한 지 며칠, 그분은 쉬는 시간이 되면 항상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어느 날, 담배 냄새를 피해 늘 멀뚱멀뚱 서 있던 저에게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류 주임님은 담배를 안 피우시나 봐요.”

전 약간의 농담을 섞어 “술, 담배, 커피는 물론이고 마약도 안 합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선 그런 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이며 제가 그 교회의 회원이란 말 등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됐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담임선생님의 성함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의 중학교 시절이라면 30년 전쯤, 그 시절에 이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회원이라면...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담임선생님의 존함을 기억하는지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기억하죠. 조만구 선생님이라고.”



네. 바로 그랬습니다. 그분의 30년 전 담임선생님은 지금 서울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조만구 회장님이셨습니다. 저와 그분은 유쾌하게 웃으며 조만구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훌륭한 교회 지도자라는 말을 그분에게 들려드렸고, 숙제 검사 후 사인을 하실 때 항상 ‘10009’라는 숫자를 적어 놓으셨다는 재미있는 추억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담배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야기가 커져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하게 된 것이 제게는 무척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제가 후기 성도란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홍세형, 광주 스테이크 첨단 지부



1995년 늦가을,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를 했습니다. 군 제대 후 선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병으로서 맞

이하는 첫 회식. 선임병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회식 전날부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째깍한 밤, 침상에 누워 천정 한가운데 있는 환한 불빛을 보면서 지혜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의로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회식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 거나하게 취한 가운데 선임병들은 신병들에게 술잔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선임병이 제게도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어떻게 거절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신병들의 장기자랑을 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전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얼른 중앙으로 뛰어나가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어느새 회식은 무르익었고, 저는 술 권하는 분위기에서 잠시 비켜날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훌륭히 지키는 가운데 군에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드디어 병장 진급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는 체력장으로 부대를 크게 한 바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힘차게 달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명 두 명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던 저는 ‘준비된 것은 반드시 쓰인다.’는 말처럼 결국 1등으로 체력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지치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더욱 굳건한 간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재원, 시애틀 뉴포트 와드



제가 처음 교회를 알게 된 것은 1971년, 아직 고등학교 생일 때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접하게 되었지만 저는 당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나게 될 인연은 꼭 다시 만난다고 했던가요? 그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다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1980년 6월 7일에 친형님과 함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의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종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친구들은 반가운 마음에 너도나도 술잔을 권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거둬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제 머리 위에 술을 붓는 등 짓궂은 장난을 쳤지만 제 마음은 편하기만 했습니다. 그 후에도 가족 모임이나 아버지의 회갑 잔치 등 술의 유혹을 받았던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기 위해 술잔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승훈,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몇 년 전 어떤 대학에서 직장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이 끝난 뒤, 교수님은 수강생들을 모두 데리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동그런 원탁에 교수님과 수강생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바로 왼쪽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일명 '폭탄주'라는 걸 만들어 먼저 마신 뒤, 모든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술을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드셔야 합니다. 만약 이 술을 들지 않으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고 벌도 받아야 합니다.”

술잔이 돌아가는 가운데 교수님의 오른쪽부터 한 바퀴 돌아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집어 들고 그 자리에 함께한 회중들에게 약 30초 내외의 짧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분위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이 술을 마시기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뜻한 바가 있어서 교회에 다닌 뒤부터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술, 담배, 커피 등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 술을 마시지 않고, 벌을 받고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술잔을 내려놓은 뒤, 벌금을 내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제 술잔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벌금은 안 내도 됩니다. 저는 신념이 확실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술은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서 그는 제 술을 대신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모든 모임이 끝난 뒤 술에 취한 그 교수님을 부축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가는데, 그가 제게 몸을 기댄 가운데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이 나이에 이르도록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관련하여 그날은 참으로 유쾌한 경험을 한 날이었습니다.

최훈기,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2004년 여름, 저는 취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중대 회식 때문에 취사병들은 아침부터 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회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구석에서 고기와 음료수만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취사병들이 수고가 많았다며 직접 술을 따라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중대장님이 건넌 술을 거절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술 마시던데 너는 왜 안마시냐?”

제가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화가 난 중대장님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영창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창은 군인들이라면 다들 무서워하는 곳이었지만 저는 교회와 부모님에게서 배운 원리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중대장님이 저를 중대장실로 불렀고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하는 생각으로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이 저에게 한 말은 예상과는 무척 다른 것이었습니다. 중대장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제의 일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신념을 지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중대장님은 저를 더 신뢰해 주셨고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한 간증을 얻었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지금은(이 글을 쓸 당시 최훈기 형제는 전임 선교사로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구도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에 대해 가르칠 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킬 때 뼈에 골수를, 배꼽에 건강을, 감추인 보화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젊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빛이다!”

전국 청년 음악제가 있었던 11월 25일, 대전 우송 예술회관은 추위를 녹이는 젊음의 열기가 가득했다. 그 빛나는 젊음, 그 뜨거운 열정을 모임에 참여했던 청년 독신들의 후기와 함께 소개한다.

양 손을 울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아아~’ 하는 맑고 청명한 하품 소리와 함께 손을 내리기. 서울 서 중교 교육원의 독특한 발성 연습이다. 이 특이한 발성 연습은 처음 합창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민망해서 키득키득 웃다가 무안당하기 일쑤였지만 굳어있는 우리의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데 제격이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되면서 곧잘 따라 하곤 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제 당일에도 사람들이 보던 말건 로비에 모여 이 독특한 발성 연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는 음악제에서 ‘봄’을 말아 시작의 이미지를 주는 ‘침례’와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를 편곡해서 준비했는데, 첫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우리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전에 일찍 도착하지 못해서 지휘자와 담당자들이 리허설을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는 로비 계단을 무대로 삼아 연습을 해야 했다. 드디어 무대 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함께 모여서 화음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참여 인원은 매주 들쭉날쭉이었고, 인천이나 수원지역의 독신들이 신촌까지 오는 일도 만만찮은 일이었다. 정말 음악제를 하는 것인가 하는 시간들이 지나고 무대 뒤에 서 있을 때의 감회란... 사실 긴장뿐이었다.

두 곡을 부르는 우리의 공연은 채 15분도 되지 않았다. 이 15분을 위해 우리 독신들은 황금같은 토요일 저녁을 희생하며 함께 모이고, 모이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공연자가 되기도 하고 관객이 되기도 하면서 이 음악제를 즐겼다. 준비 과정에서도, 공연장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미흡한 점도 우리의 일부분이며, 이것은 우리의 축제였으

조셉 스미스의 순교를 표현한 연극, ‘가을처럼’.
왼쪽부터 강봉균 형제, 강인용 형제.

로 즐길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도로 우리의 도전과제를 하나 마친 기분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 서울 서 중교 교육원, 이상미 자매 ✽

전 국 독신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독신 문화 축제의 첫발을 중부 중교 교육원에서 준비하며 몇 년 전 고원용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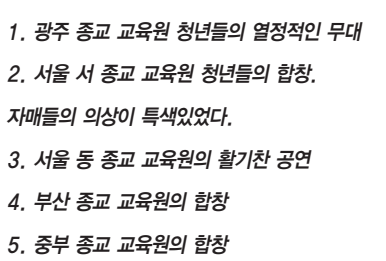
“부름은 큰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주어진다.”

부족한 능력으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며 어렵게 받아들이는 교회 부름처럼 전국 단위의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기에 너무나 큰 사이즈의 부름같이 느껴졌다. 음악적 재능도 부족했을 뿐더러 없는 시간을 쪼개어 연습에 참여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합창 연습에 참여하는 독신들이 잘 따라 주지 않을 때는 혼자서 속상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 힘들고 지친 마음이 들 때 올바른 목적을 잃지 않고 숙연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던 것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공연 당일에는 긴장된 마음에 무대에서 실수하고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리허설 없이, 리허설이 실전이 되고 실전이 리허설이 되기도 했지만 진땀나는 돌발 상황에서도 무대에 오른 각 지역 독신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뭉클해져 왔다.

진행 도우미로서 객석이 아닌 무대 커튼 사이에서 가까이 지켜보며 독신 하나 하나의 빛나는 눈동자와 진지한 자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중함을 떨어뜨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화음의 합창이 아닌 강한 신앙의 의지처럼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중부 중교 교육원, 이효선 자매 ✽

전 국 청년 예술제.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 편에 잔잔한 울림이 전해 온다. 그 울림은 전국 청년들의 열정이며, 숨길 수 없는 재능이며, 사랑 그리고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가 표현해 내야 하는 것은 바로 ‘가을.’ 성숙함으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가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독신들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연습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리가 멀다는 지역상의 특성을 고려해 대구 스테이크는 합



1. 광주 종교 교육원 청년들의 열정적인 무대
2.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청년들의 합창.
자매들의 의상이 특색있었다.
3. 서울 동 종교 교육원의 활기찬 공연
4. 부산 종교 교육원의 합창
5. 중부 종교 교육원의 합창

사진 촬영: 황성민 황재

사진 촬영: 황성민 황재

히 간직하고 기억할 것이다.

✽ 부산 종교 교육원, 이인주 자매 ✽

한창 무더웠던 8월 둘째 주 안식일에 처음 시작된 합창 연습은 선선해진 10월부터는 매주 안식일에 연습이 진행되었다. 각자의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받은 부름과 여러 모임 등으로 바쁘고 피곤한 안식일에 이뤄지는 연습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신들은 서로 다른 파트의 소리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뤄 내는 합창의 매력에 푹 빠져 오후 3시에 시작된 연습은 저녁 8시, 9시가 넘은 시각에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11월 18일 토요일 신당 와드에서 티셔츠 페인팅과 바비큐 파티, 리허설을 하였고, 11월 19일 안식일에는 연습에 앞서 합창 연습을 통해 얻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최종 리허설도 이뤄졌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그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준비 과정에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고원용 장로님의 말씀처럼, 동 종교 교육원 독신들은 음악제를 통해서 겸손, 희생, 끊임없는 노력, 헌신, 열정, 선함,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함 등의 가치를 서로의 모습을 통해 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후기 성도 젊은이로서의 간증을 키우는,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였다.

✽ 동 종교 교육원, 이지은 자매 ✽

독신 음악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원 동원이었다. 고심하던 광주 종교 교육원 독신들은, 음악과 춤에 관심 있는 저 활동 회원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연락했을 때 그들이 함께 하겠다, 라고 대답했으며, 실제로 무대에서 함께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이번 독신 음악제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독신들의 우정 증진이라는 생각이 든다.

드디어 발표날. 음악상의 문제로 형제들 몇 분이 무대 위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독신들이 모여 준비하였기에 의견 충돌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매일 밤 모기와 싸우며 음악을 선정하던 여름, 단풍 구경도 잊은 채 춤 동작을 만들던 가을, 찬 교회 바닥에 엎드려 춤을 연습하던 겨울. 광주 스테이크 독신들은 이렇게 매일 밤을 함께하였기에 아무런 연습을 하지 않는 지금의 밤이 너무 외롭다고 입을 모은다.

✽ 광주 종교 교육원, 최진 자매 ✽ ■

창을 준비하고 부산과 부산 서, 마산 지역이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가을처럼' 을 발표하기로 했다.

오랜 연습을 끝내고, 드디어 예술제가 있던 날. 독신들은 새벽잠을 설치며 대전으로 향했다.

막상 도착하니 분주하고 바쁜 일정으로 리허설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무대에 오르게 되어서 걱정도 있었지만, 막이 오르고 피아노가 첫 음을 내면서부터 독신들은 하나된 목소리와 마음으로 관객과 무대에 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합창과 연극을 발표했다. 감동적인 무대가 막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부산 종교 교육원 청년들이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성해 갔던 합창과 연극은 예술제 무대에 오르는 데 의미를 두기 이전에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고, 완성해 가는 하나의 만남으로 가슴속에 새겨졌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였다. 그것은 우리 후기 성도 청년들 가슴속의 특별한 울림이였다. 우리 청년들은 그 울림을 영원



가야금과 해금이 어우러진 기악 연주.
왼쪽부터 조민지 자매, 이유나 자매

가족 및 교회 역사부를 가다

“이 교회의 초기부터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조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고든 비 헝클리 회장 -

2006년 10월 교회 조직 가운데 독립된 조직인 '가족 및 교회 역사부'가 설립되었다. 부서 이름은 생소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회에서 자주 들어 봤음직한 단어들로 구성된 '가족 및 교회 역사부'는 향후 한국의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조직이다.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책임을 맡은 홍하식 형제를 만나기 위해 11월 어느 날, 서울 성전 내에 위치한 사무실(구 서울 성전 유아 대기실)을 찾았다.

하나로 묶다

“가족 및 교회 역사부는 회원들이 조상을 찾고, 찾은 조상을 하나의 가족으로 연계시킨 후, 그분들이 성전 의식을 받음으로 인해 하늘과 지상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돕는 곳입니다.” 홍하식 형제는 '가족 및 교회 역사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하나로 묶는'이란 말에 유독 힘을 준다. 신권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원을, '가족 및 교회 역사부'는 현재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교육, 도구 등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항해에는 나침반이 필요하듯,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조상들을 찾아야 하는 가족 역사 사업이라는 긴 항해 역시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 나침반의 역할을 '가족 및 교회 역사부'가 수행한다.

문은 열려 있다

그렇다면 '가족 및 교회 역사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홍하식 형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사무실의 문은 언제라도 열려 있지만, 최근에 배포된 지침서에 명시된 것처럼 앞으로는 와드의 '가

족 역사 상담자'가 주축이 되어 가족 역사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가족 및 교회 역사부'는 가족 역사 사업의 핵심이 되는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의 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향후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에서 의식을 받기 위한 절차가 현재 교회 본부에서 준비 중인 새로운 FamilySearch 웹사이트로 바뀔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이용 등의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홍하식 형제의 생각이다. 홍하식 형제는 사무실 내의 여러 컴퓨터를 가리키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회원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개설 준비 중입니다. 회원들이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를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혹은 담당자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홍 형제의 말은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 홍하식 형제는 현재 전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질 '봉사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봉사 선교사는 전임 선교사와 달리 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본인이 정한 시간만큼 주님의 사업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나라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에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률도 높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족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보 사업과 족보에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신 경륜이 있는 회원들과 컴퓨터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젊은 회원들 모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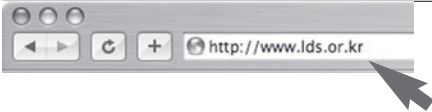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훌륭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다

홍하식 형제는 IT 관련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재원이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홍 형제가 '가족 및 교회 역사부'를 선택하게 된 것은 봉사에 대한 소망과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간증 때문이었다. 영의 세계에서 의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다른 주님의 자녀들을 선택된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는 홍하식 형제. 홍 형제는 “전임 선교사가 살아 있는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우리가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돌아가신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지상에서와 같이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은 이 지상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IT 업계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경험들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기회라고 생각하는 홍하식 형제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회원들의 가족 역사 사업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친다. ■

'가족 역사 지원부'는 현재 화-금 (09:00-19:00), 토(08:00-14:00)까지 가족 역사 관련 지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스테이크

■ 스테이크 대회 - 광주 스테이크 대회가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 스테이크 예술제 - 11월 18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토요일 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예술제가 있었다. 재능 있는 회원들의 참여와 많은 회원들의 수고로 예술제는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

대구 스테이크 가을 음악회

■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에서는 배덕수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로 가을의 정취와 향운을 느낄 수 있는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부산 서 지방부

■ 지방부 대회 - 10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의 감리로 지방부 대회가 진행되었다.

■ 부산 서 지방부 청년 창립 기념일 행사 - 2006년 11월 18일 부산 서 지방



부 대신 지부에서는 지방부 회장단 1보좌인 안종원 회장의 감리로 청년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사랑의 김장 담그기

■ 11월 25일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와드 활동실에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스테이크 내에 있는 어려운 회원들과 전임 선교사 그리고 김치를 필요로 하는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 영등포 와드 건축 기공식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 문형범 형제 '골든벨'을 올리다 - 지난 10월 15일 춘천 와드의 청남인 문형범 형제가 KBS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 11월 4일 훌라춤, 요가 등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뽐낸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다.

서울 북 스테이크

■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 창립 기념일 행사 - 11월 19일 토요일에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서는 청년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다. 이날 일산 와드의 김하에 자매(고3)는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의 가치관 활동을 모두 달성하여 손병호 스테이크 회

장으로부터 청년 메달을 수여받았다.



■ 진경섭 형제 '제30회 청백봉사상' 수상 - 신촌 와드의 진경섭 형제가 지방 공직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청백봉사상'을 수상했다.

서울 스테이크

■ 허정훈 형제 가족 '다복상 수상' -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1회 중구 다복왕 선발대회'에서 신당 와드의 허정훈 형제 가족이 수상하게 되었다.

안양 스테이크

■ 청년 창립 기념 행사 - 11월 18일, 청년 창립 기념 행사는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의 가치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꾸며졌다.

제주 지방부

■ 음악의 밤 - 11월 11일 제주 지방부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의 밤 모임이 있었다.

바로잡습니다

2006년 12월 리아호나 지역 소식 '새로운 개종 이야기'의 본문 중에 고혜자 자매의 지부가 '대신 지부'로 표기된 것을 '괴정 지부'로 바로잡습니다. ■

2007년 후기 성도 헌혈 행사



“헌혈합시다!”

2007년 헌혈 행사의 일정이 발표됐다. ‘사랑 나눔의 실천’이라고 불리는 헌혈은 교회가 오랫동안 참여해 오고 있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이다. 매해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헌혈은 이제 후기 성도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 행사는 혈액

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헌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의미는 헌혈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시대의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자신의 저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실로 위대한 사람은 자기 삶의 일부와 시간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중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때입니다.”

헌혈은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육체의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진정한 봉사로 불린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후기 성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 속에 성황을 이뤘던 지난 수 년 간의 헌혈 행사처럼 올해도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순간, 2007년 후기 성도 헌혈 행사는 2007년 2월 중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와드나 스테이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교회 소개, 시사 뉴스 저널에 실리다

월간 잡지 시사 뉴스 저널 12월호에 다섯 페이지에 걸쳐 자세한 교회 관련 기사가 실렸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감독: 문황업(전임: 배상정)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감독: 정해원(전임: 하현수)

브리검 영 대학교 MBA 과정 설명회 및 BYU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한국 GMS 창립 모임



지난 11월 10일 저녁, 신당 와드에서 브리검 영 대학교 MBA 과정 입학 설명회가 열렸다. 서울 지

역, 포항, 제주,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입학 희망자들은, 이날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온 MBA 학생 모집 담당자 브링커포프 형제와 MBA 학과장 스타이스 교수에게서 직접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소개와 MBA 과정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브리검 영 대학교 MBA 과정 수료의 목적은 “준비된 학생들을 교육하고 신앙을 강화하여 회원과 교회의 발전은 물론 사회 전반을 위한 축복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브리검 영 대학교 MBA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에 돌아온 졸업생들이 직접 유학 경험과 그곳에서 얻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LG전자 부사장인 김영기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교가 가르치는 직업 윤리가 전세계에서 환영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MBA 과정을 통해 이런 BYU의 혼을 배운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입학 설명회 후, BYU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한국 GMS(Global Management Society) 설립식을 가졌다. BYU 관련 인사들이 모여 전세계 사회에 윤리 경영 문화를 전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활동하는 BYU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GMS는 이미 미국 및 세계 여러 곳에서 활성화된 조직이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내정된 신용인 회장은 BYU 메리어트 경영 대학원 한국 GMS의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윤리 가치관을 한국 재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 지역 복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용일 장로는 축하 인사에서 “지금 BYU에는 이천여 명의 한국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BYU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모두 한국으로 돌아 왔을 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행복해집니다.”라며 BYU 정신과 한국 학생들이 학국 교회 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와 한국 관리본부 대표 최윤환 형제, 공보 위원회 위원장 최석구 형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사 제공 황미주 자매>

GMS 인터넷 주소: <http://cafe.daum.net/BYUGMS> ■